

2학년 6반 이지은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바람이 분 날>

제목 : IFC 쇼핑과 햄스터 무덤

IFC에 가서 여름 드레스와 티셔츠를
샀다. 예쁘고 귀여운 드레스들이었다.
하나는 무당벌레 있는 연두색 드레
스였고, 또 다른 하나는 하얀색
정장 드레스였다. 그리고 아바는 파랑색
줄무늬가 있는 시원한 바다 느낌이
있는 드레스도 사주셨다.

기분이 신났고 정말 예뻐다.
빨리 날씨가 더워져서 학교에
입고 가고 싶다.

집으로 돌아와서 뒷마당에 있는
햄스터 <버러킴> 무덤에 갔다.
2년간 함께산 버러킴은 어제
하늘 나라에 갔다.

하얗고 귀여운 장난꾸러기 버러킴
무덤에 예쁜 꽃들을 가져다
주었다. 동생과 나는 버러킴이
하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 했다. 아바도 버러킴은
행복하게 살거라고 하셨다.

<버러킴 안녕>

2학년 6반 이지은